

이 시대의 정의는?

What is the justice in these days?

오동욱 |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법률은 초기에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나 원칙을 정립한 것으로부터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까지 법률로서 만들어 지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요 근본이다. 결가지나 사이가지가 생겨나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은 뿌리인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지면서 그 법의 모태적인 기본법의 정의를 침범하고 제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한 업무(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적내용을 수반하는)들 가운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안위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정부부처 산하에 직접적으로 이를 대행하기 위한 전문가제도를 둔다. 이가 곧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건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규제위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분야에서 국가전문자격자 외 다른 자를 점검자로서 행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건축에 대한 이해와 무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건축(법)의 정의를 부정하고 근본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환자를 의사가 아닌 자에게 진료를 맡기는 행위'인데 말이다.

또한 인테리어협회 및 연구용역자가 인테리

어를 실내건축이라고 호도하며 자기네들이 실내건축의 배타적인 영역과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 발주용역을 수행한 후 최종보고회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계분야에서 국가전문자격자단체인 우리협회의 대표단은 사전 참석통보를 담당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담당과장에게 문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초고층 건축분야에서 구조기술사가 감리해야 한다고 발의되고 있다. 건축(기본, 마감, 구조, 기계, 전기, 토목 등)도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얼마만큼이나 이해되지않고 설명하는게 현실인데 그런데도 그들이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한다?

그밖에 금년도 발생하였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서 건기법에서의 건축설계분야를 건설기술로서의 정의하는 부분, 초고층 건축물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조, 시공, 도시기술사 등이 참여하여 국가전문자격자의 근본을 침해하는 부분, 기술사들의 모든 도서에서 최종날인, 초고층 건축물분야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야한다는 부분 등...

상기의 행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금력에 의한 탐욕이 기본적인 배경임에 틀림없다. 잘 살자는 것이 무슨 문제일 수 있겠느냐만

오동욱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국토해양부 자문위원, 서울지방항공청 심의위원, 소방방재청 심의위원, 한국건축자재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청석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금력에 의한 탐욕이
기본적인 배경임에 틀림없다.
잘 살자는 것이
무슨 문제일 수 있겠느냐만
이는 나 아닌 타인의 부당한 희생하에
살겠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는 나 아닌 타인의 부당한 희생하에 살겠다는 의미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럼 이시대의 위정자나 국민의 시녀라고 불리는 공무원들은 과연 그 근본에 충실한가? 집단적이고 배타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한 논리에 의한 직업적 세력군들의 이중적 행태에 흔들리고 앞장서지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건축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이 시대의 정의와 근본은 과연 무엇인가? '21세기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의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근본 및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과연 정당한가? 그들의 주장에 무슨 정당성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의 근본 및 정의를 뿌리채 파괴하는 행위일 것이다.

현재는 돈의 가치가 최우선시 되는 사회로 '돈이 정의다'라고 까지 왜곡되고 있다.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탕에 정당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정의의 실종...'이라는 현상이 보편화 되고 있음을 경계하고 감시해야 한다.

누구든지 국민은 공동체 및 국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저변에는 공동체의 정당성에 입각한 공통적 가치추구 및 불변의 정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의 근본이 침해 당하였을 때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인간은 공동체 및 국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저변에는 공동체의 정당성에 입각한 공통적 가치추구 및 불변의 정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것의 근본이 침해 당하였을 때의 분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의의 여신상